기자수첩

행정사무감사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다

홍성인
대표기자

2016년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로 종료됐다. 13일 현장방문서부터 시작된 5일간의 일정. 솔직히, 이번 감사를 취재하면서 불편하게 보여졌던 부분은 적지 않았다.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의원 간의 개인적 감정이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이복희 의원이 거론하자, 장재철 의원은 이복희 의원이 과거 대표로 있거나 연관돼 있던 기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여기저기서 보복성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상황은 지속됐다.

과거 이복희 의원과 연관돼 있던 성인문해센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홍원상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허술한 점을 들어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기관에 대해서는 '만들어져선 안됐을 단체' 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성인문해센터와 관련된 감사가 이뤄지고 있을 때 이복희 시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 운영과 관련된 해명(?)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인문해센터, 푸드뱅크, 노인돌봄기관 등의 감사에서도 결국 당시 대표로 있던 이복희 시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은 계속 쏟아졌다. 오죽하면 기자들 사이에서 "기승전 '이복희'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니까.

피감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점 등이 제기됐고, 이번 감사를 토대로 앞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 뒤끝이 개운치는 않다.

마치 초선의원에게 "앞으로 행동 잘해야 된다"는 식의 훈계처럼 보여지는 감사였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들과 연관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해야한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곤했다.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머리를 모아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감사의 모습이 아닌 의원들 간에 준비된 각본 같은 감사의 모습이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피감기관이 자신과 연관돼 있으면, 도의적인지는 몰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성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사는 진행됐으니까.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는 끝났다.

하지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명분을 얻었는지 궁금하기는 하다.

지역인물동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더민주 조정식 의원 선출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여·야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 위원장 단을 선출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 을)을 선출했다.

조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데다 지역구인 시흥지역에 배곧신도시, 보금자리 지구 등 개발관련 현안이 많아 국토교통위 업무에는 천수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택 도의원,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 제정

(시흥타임즈=우 동 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경기도에 61,0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예방, 재난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가하면서, 촬영된 영상 중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충목 시흥시 도시교통국장 지속가능과학회상 수상

이충목 시흥시 도시교통국장이 16일 (사)지속가능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과학회상'을 수상했다.

지속가능과학회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부문의 주민계획가 양성과 배곧숲학교를 통한 시민정원사 배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시정업무에 주민의 계획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조성만이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는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속가능과학회는 공유·공생·공영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발전목표를 지속가능함이라는 가치를 연구하는 단체다.

시흥 향토작가 복연금 개인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의 향토작가인 서양화가 복연금 작가가 개인전을 개최한다.

19회째를 맞는 이번 개인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연꽃갤러리(시흥시 농업기술센타1층)에서 펼쳐진다.

또 오프닝 행사는 20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복작가는 단국대 대학원 조형예술학과(서양화 전공.미술학 석사)를 졸업하고 개인전은 이번이 19회째다. 단체전 및 그룹전 260회 이상 전시 참여했고 나혜석 미술대전.모란현대미술대전등 다수 심사위원 역임을 했다.

현재는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성동 주민센타 유화반 강사.모네화실(매화동) 운영과 모네갤러리(물왕동) 대표 등도 맡고 있다.

시흥경찰서, 여성 안전 특별치안 활동

시흥경찰서는 지난 7일 여성 안전 특별치안 활동으로 시흥서 민·경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합동으로 은행동 상업지구 공중화장실 및 공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실태점검에는 경찰서장·은행파출소 및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시흥경찰서 장우성 서장을 비롯해 협력단체원들과 상업지구 내 공중화장실 점검부터 인적이 드문 공원지역 순찰, 방범용 카메라와 비상벨 점검, 공원 내 여성화장실까지 2시간에 걸쳐 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역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아 신속대응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계획이다.

장우성 시흥경찰서장은 "여성 안전 특별 치안 점검을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14개 시·군, 20대 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 14개 시·군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 고 촉구했다.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진흥 고양시부시장, 유영봉 오산시부시장은 6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4당 원내 대표를 방문해 누리과정 국가부담을 입법화하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 등 4곳은 정부에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며 힘들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부 시·군은 고심 속에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집행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입법 촉구문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을 포함한 14개 시·군이 서명했다.

▷ 촉구문에 서명한 시장·군수 -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 포럼-시흥의 제21에 바란다' 개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이하 : 시흥의제21)는 8일 오후 시흥시 일자리 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 포럼-시흥의제21에 바란다-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UN이 2030년까지 빈곤퇴치,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통해 전세계가 함께 추진해야할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SDGs) 2015년에 새롭게 수립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작년에 국가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는등 국내외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국내의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